



사회주의만세!  
사회주의만세!

자력투쟁

자력번영

# 승수강산



# 5

2025년

루게 제429호 월간

### 표지: 준공의 밤

민족최대의 4월명절과 더불어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하였다.

준공을 경축하여 밤하늘에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사진 김성철



2 || 대양절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승리와 영광의 80년

8 ||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9 || 옥돌공예 《룡봉길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0 || 보금자리

12 || 은혜로운 품속에 안겨 이역에서 70년

일화

17 ||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18 ||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20 ||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길에서

22 || 총련지부강화에 중심을 두고

23 ||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

24 || 생산능력을 부단히 개선하여

28 || 건설의 대번영기를 담보하는 건재공업

고향소식

30 || 새 문명, 새 생활이 마중오는 고장

34 || 외국어교수의 전수능력을 높여

36 || 태권도선수후비들이 자란다

38 || 재간통이소녀

40 ||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42 || 명감독 송승권

44 || 애국의 마음안고

46 || 공연의 막은 내리었지만

조선의 명승

48 || 몽금포코끼리바위

민족의 향기

50 || 민족의 슬기어린 탈춤유산들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정광사

력사이야기

54 || 서산대사와 사명당

55 || 고구려시기의 건축물로 새로 확증된 력사유적 두대동성

천연기념물

56 || 석담느리나무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 태양절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온 나라 인민이 환희롭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

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에 넘쳐있었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군중들은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복이 얼마나 위대하며 천만년 빛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이 얼마나 큰가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15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수도의 밤하늘가에 노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 하네》가 울려 퍼지며 화려한 춤바다가 펼쳐졌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가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아름다운 춤물결에 담아가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이 어리어있었다.

《인민의 환희》, 《당이어 그대 있기에》 등의 노래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빛내여가는 우리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 주었다.

경축의 밤하늘을 축포탄들이 장식하여 야회분위기는 고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진행되었다.



사진전람회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천지개벽된 우리 수도 평양》이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개막되었다.

형형색색의 불보라와 불꽃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라 4월의 밤하늘을 천색만색으로 물들이고 광장은 경사로운 명절을 뜻깊게 보내는 청년학생들과 군중들의 기쁨으로 끝없이 설레이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한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따라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애국의 힘과 열정으로 빛내어나가는 새세대들의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맞으며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각지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등의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시, 군(련합)예술소조부류, 기관예술소조부류, 공장, 기업소예술소조부류, 농장 예술소조부류로 나뉘어 수도의 여러 극장, 회관들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청년학생들의 덕성발표모임,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4.15경축 영화상영주간, 로화가들의 미술전람회, 전국서예축전 등도 진행되었다.

로화가들이 창작한 유화 《만경대고향집》, 《백두산의 봄》을 비롯한 작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보았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15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수도와 각 도(직할시)들에서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경축 전국서예축전이 진행되었다.



4.15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경축 로화가들의 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3돏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창덕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3돏경축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 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더 높이 올라라 행복의 노래》가 평양시청년 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3돏을 맞으며 전국웅변모임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제14차 전국인민체육대회 전문체육부분 소백수림 파 4.25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가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태양절을 경축하여 각지에서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평양과 지방의 곳곳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공연 무대들이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연들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수령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인민의 불같은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자강도에서



평안남도에서



강원도에서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4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었다.

#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세대를 이어 수행되는 장구한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하여 나갈 때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고수할 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이 중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해방후 당창건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 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당의 위업을 계승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되였다.

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착잡하시였다.

당시를 회상하시며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그때 자신께서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혁명의 기관차인 당이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였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그 어느 고전에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피흘리며 투쟁하여온 전 로정을 돌이켜보시며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이 나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핵이 없는 물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은 오직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류레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으며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 화할데 대한 방침도 제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당안에서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건설, 당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에서 수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신 그이의 령도에 의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체현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가 차넘치는 당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정녕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에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력사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던 지난 세기 90년대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참다운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더 존엄떨치고있다.

글 강경수

## 옥돌공예 《 룡 봉길향 》

옥돌공예 《 룡 봉길향 》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2012년 4월 15일 중국의 어느한 조선족경제인협회에서 드린 선물이다.

옥돌로 된 선물에는 파새김기법과 부각기법으로 룡과 봉황새가 정교하게 형상되어있다.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룡과 봉황을 형상한

옥돌공예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정을 바라는 동포들의 뜨거운 진정이 담겨져있다. 또한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있다.

\* \* \*



# 보 금 자 리

(전호에서 계속)

그러나 그 애어린 육체들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책임을 이 나라 녀인들에게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햇숨같은 육체를 가랑잎으로 뜯을 때 그리고 남의 집 대문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때두고 갈 때 유격구녀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패였는가를 안다면 간도땅에 살인백정의 무리들을 파견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이 나라 녀인들의 모성애에 참을수 없는 시련을 강요한 최악은 전적으로 일본군국주의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자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자취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물론 유쾌한 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아무리 쓰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바자밑에 자기의 살붙이를 때두고 가든가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아편덩이를 밀어넣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 느끼던 그런 고통보다야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

일본지배층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본군에 의해 참살된 수백만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으로 될 것이다.

혁명군중앞에는 왜놈들의 요구대로 도시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역하고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는가 하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간도땅에 온 조선사람들치고 왜군이 도사리고있는 시가지에 가겠

다고 응해나실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간도주민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적수탈로 인하여 경제적지반을 잃고 료도국과 같은 리상향을 꿈꾸며 살길을 찾아 남부녀대의 길을 떠난 령세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관천들과 토착지주들에게 등껍질을 벗기우면서도 로야령, 할바령산줄기들의 비탈과 골짜기들에서 억척스럽게 돌을 추어내고 나무뿌리를 뽑아냈다. 화전농사는 고되고 가난은 변함없었으나 왜놈의 등쌀을 모면할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것처럼 흉악무도한 왜군을 따라 도시로 내려가라고 하니 어느 누가 피땀으로 걸구어온 자기 집 터전에서 선뜻 발길을 떼겠는가.

이것은 대살륙의 참변을 겪은 왕청골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대 시련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토벌군》의 행악질에 겁을 먹은 일부 주민들은 한집두집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세상을 열렬히 동경하고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군중은 적들의 공갈을 무릅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어제날까지 한동네에서 혁명을 위해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서 동고동락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 산과 도시로 흩어져가게 되었다.

그때 산중에 남은 사람들은 현성(백초구)으로부터 100리나 떨어진 소왕청과 대왕청의 대수림지대로 깊숙이 이동하였다. 리치백일가가 중경리에서 마촌으로 옮겨간 것도 이무렵이었다.

공산당 왕청현위를 비롯한 현급기관들은 소왕청에 본거지를 정하였다. 연길현 세린하와 태평구, 왕우구, 북동 등지로 장소를 바꿔가며 활동하던 동만특위도 1933년 봄에는 소왕청골

안으로 들어와 리수구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소왕청은 간도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로 되었다. 우리와 중국당, 우리 혁명과 중국혁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련결되게 되었다.

왕청유격근거지는 요영구를 포괄하는 1구와 마촌, 십리평을 포괄하는 2구를 비롯하여 5개의 혁명조직구로 이루어져있었다.

그 당시의 왕청유격대력량은 3개 중대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리광, 량성룡, 김철, 장룡산, 최춘국, 리웅만 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왕청에 대하여 알고있는 대체적인 예비지식이었다.

나에게 이런 예비지식을 넣어준 사람은 왕청유격대창건자의 한사람인 량성룡과 현당서기 리웅국이였다. 1932년 가을에 내가 부대를 데리고 이 고장에 와서 유격근거지의 실태를 료해할 때 바로 그들이 나의 안내를 담당하였다.

나는 그때 왕청현안의 여러 유격구들을 돌아다니며 기층당조직들의 사업과 반일회, 반일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반일부대들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의 사업정형도 청취하였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동만 각 현의 병기공장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작탄강습을 진행한 것도 이무렵이었다.

그 당시 왕청간부들은 식량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농호가 수십호밖에 되지 않던 소왕청의 좁은 골안에 1 000명도 넘는 인파가 단번에 쓸어들었는데 유격구에는 그들을 먹여살릴만한 식량예비가 전혀 없었다.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이따금씩 식량을 로획해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지주민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다. 유격구의 척박한 폐기밭들에서 거두어들인 한해 수확량이란 보잘것없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타개책으로 중간지대의 추수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간지대란 적통치구역과 유격근거지 사이에 놓여있는 무인촌들을 말한다.

소왕청과 대왕청어귀에도 빈 부락들이 여러개 생기였다. 《토벌대》가 달려들어 살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유격구와 적구로 갈라지고 중간지대에는 곡식만 남게 되었다. 그런 곡식들 중에는 적구로 내려간 지주들과 반동들의 것도 있고 《토벌대》의 총탄에 밀려 백초구나 대두천 같은 곳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농민들의 것도 있었다.

중간지대의 곡식에 대해서는 적구에서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있었다. 적구의 지주들과 반동들은 무장을 한 자위단의 엄호를 받으면서 마차와 달구지들을 끌고 날마다 중간지대에 나타나 낱알을 걷어갔다. 어떤 날은 그들이 탈곡장근처에 까지 와서 총질을 해댔다.

우리는 그때 이런 실정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모든 유격구들에서 추수대를 조직하며 근거지 인민들의 총동원으로 중간지대의 가을걷이를 지체없이 끝낼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왕청사람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상론하였다. 추수대는 소왕청어귀에서 곡식을 베면서 대두천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베 곡식은 그날로 털어서 창고에 넣고 유격구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3호촌아래부터는 적위대가 보초를 서주어야 추수를 할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5련발로 무장한 자위단의 습격을 면할수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 은혜로운 품속에 안겨 이역에서 70년

1955년 5월 25일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일본 도쿄에서 결성되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총련은 세계해외교포운동사에 길이 남을 본보기조직으로, 동포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해외동포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은 한 저서에서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제일가는 힘이고 생명선이며 우리 재일동포들의 밝은 미래입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총련이 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재일조선인 운동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난파선과도 같이 방황하였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재일조선인들은 망국노의 운명에서 해방되었지만 올바른 로선이 없었고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어 재일조선인운동은 존망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아도 조국과 민족,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주체적로선전환방침 제시, 그것은 사상과 정치 리념이기에 앞서 재일동포들을 한명도 잃어서는 안될 친혈육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로선전환방침에 의하여 마침내 재일동포들은 1955년 5월 25일 해외교포 운동의 첫 산아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결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진정으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숨결도 함께 하는 한집안식솔이 되게 되었다.

1950년대말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격찬한 귀국의 배길과 1970년대초에 조국 및 제3국에로의

왕래의 길이 열리지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재일동포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그이이시였기에 1959년 9월 일본중부지역을 휩쓴 태풍과 1967년 7월의 폭우, 1972년 7월 규슈지방에 들이닥쳤던 큰물, 1978년 6월의 미야기지진 등 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많은 백미와 천, 막대한 구원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포자녀들의 학부형이 되시어 이역땅에 주체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활짝 펼쳐주시였다.

총련이 결성된 이듬해 일본땅 한복판에 조선 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총련은 초급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완비할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애로가 있었으니 그것은 재정난이였다.

건설을 시작한 학교들이 자금난으로 해를 넘기면서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있었고 그나마 조선 대학교는 교사가 없어 다른 학교의 낡은 교실 몇칸을 빌려쓰고있었으며 지어 일본학교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학비도 대지 못하여 중도에서 공부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57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포자녀들을 위해 1억 2 109만 9 086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당시 조국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혁명의 난국을



국가적명절들과 기념일들을 경축하고있는 총련동포들

뚫고나가자고 호소하신 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

한푼의 돈이 것처럼 귀하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그이께서 보내주신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재일동포사회는 말그대로 걱정도 도가니로 화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국의 국가 예산에 세계금융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예산항목이 자리잡게 되어 세세년년 동포자녀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재일동포들을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로 품어 안으시고 사랑과 정의 전설같은 역사를 수놓아 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련련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1995년 5월 24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키는데 대하여》에서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게 될것을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총련은 그이의 력사적서한에 기초하여 변화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자기의 활동방향을 확정하고 강령을 전면개정함으로써 새 세기에 애국애족위업의 발전을 위한 리정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총련을 둘러싼 정세와 환경은 엄혹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적대시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면서 그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으며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야수적폭거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99년 4월 20일 총련중앙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시고 총련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해주시였으며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원칙들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총련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자그마한 로선상 착오나 순간의 좌절도 모르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되어올수 있었다.

재일동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김일성민족의 일원으로 여기시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



영웅, 높은 국가수훈자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도 헤아리시여 화객신인 《만경봉-92》호를 마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연의 대광란이 재일동포들의

신상에 뜻밖의 재난을 몰아올 때마다 운명의 구세주가 되시여 불행을 가셔주시었다.

《1995년 국제10대뉴스》의 하나로 세상을 놀래운 한신대지진과 2004년의 니이카다대지진에 이어 2011년에 도호쿠지방을 휩쓴 대지진과 해일

피해때에도 재일동포들은 비관을 몰랐다. 재일동포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는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신 그이의 은정속에 거액의 위문금이 리념과 단체, 소속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조국이 력사에 류레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그이께서는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중단없이 보내주시였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동포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애국지성이 조국땅위에 찬란히 꽃피어나도록 남다른 특혜와 특전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총련일군들을 뜻과 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로 한품에 안아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총련일군들을 만나시어서는 본가집이나 만형네 집으로 알고 조국에 오라고, 올 때 부인도 꼭 데리고오라고 다정히 이르고 헤어질 때면 잘 가라는 말보다 잘 갔다오라고 인사하고싶다고 하시며 석별의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신분이 바로 그이이시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이의 그 사랑속에서 총련의 초대 의장 한덕수, 제1부의장이었던 리진규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1세들이 복된 삶을 누리였으며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고 지켜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피출처럼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민족대국상의 나날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2년 7월 20일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고 새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와 전략적목표를 밝혀주시었다.

201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이역땅에서도 민족성을 곳곳이 지켜가고있는 총련동포들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총련을 주체적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으로 되었다.

그이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주체위업,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갈것을 바라시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제24차 전체대회와 창립 60돐을 맞이하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들과 새해축전들에도 어려웠다.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 피줄을 잇고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불러주시었고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비롯한 뜻깊은 대회들에 참가한 동포대표들이 남다른 특전과 특혜를 누리도록 해주시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한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과 특별히 따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애국애족의 길에서 세운 재일동포들의 공로도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따사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었다.

그이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계기로 해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과 재일동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을 더욱 뜨겁게 이어주시었다.

재일조선학생들이 해마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랑을 마음껏 노래부르도록 해주신 그이께서는 올해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어 사랑의 한품에 안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의리로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맺어주고 꽃피우고 지켜주신 혈연의 정을 영원한 피줄로 이어주시었다.

총련이 걸어온 70년의 력사, 그것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승리와 영광을 수놓아온 긍지높은 력사이며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사랑의 력사이다.

글 김지성

일 화

#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 조선대학교가 창립되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4년 9월 어느날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대학을 세워주실 구상을 펼치시고 일본에 조선대학교를 창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아직 총련이 결성되기 전이였다. 아무리 조건이 어렵다 해도 애국인재와 민족간부를 양성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대전당을 마련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따라 강화발전시키고 재일동포들의 념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내오는 조선대학교는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동시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메고나갈 총련간부들과 조선학교 교원들을 키우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고 조선대학교를 이미 있던 조선사범전문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내오도록 그 구체적인 방향까지 가르쳐주시었다.

하여 1955년 5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되었고 조선대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마침내 1956년 4월 10일 조선대학교가 창립되었다.

##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1995년 1월 어느날 새벽 한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일군이 인사를 올리려는 순간 그이께서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빨리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지진피해가 있는 다음날 아침 총련에 몸소 위문전문을 보내주신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지진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두고 또다시 걱정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해외에 살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불행과 슬픔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가만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는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리시었다.

이리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많은 위문금이 전달되게 되었다.

## 사랑의 기념사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 2일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2025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었다. 조국멀리 이역땅에서 오매에도 뵈고싶던 그이를 당중앙 프락에서 뵈옵게 된 최상의 행복과 영예로 하여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기쁨에 넘쳐있는 예술단성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귀여운 학생들의 볼도 다독여주시며 어머니조국에서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따듯이 축하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에서 변심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념을 이어 참되고 아름다운 성장의 나래를 펼쳐가는 총련의 금옥같은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예술단단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총련애국위업의 바통을 이어나갈 역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하시었다. 꿈만같은 사랑이 넘쳐흐르고 보답의 열기로 달아오른 당중앙 프락에 총련의 아들딸들이 설맞이공연무대에서 절절히 불렀던 충효일심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애국애족의 대를 피출처럼 이어갈 지향으로 충만된 학생소년들의 노래를 기쁨속에 들어주시고 따듯이 고무해주시었다.

\* \* \*

#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사회는 감격의 도가니로 세 차게 끓어번지였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눈곱이 젖어두고 어머니 조국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억만금의 재부를 받아안았다 한들 이처럼 감격할수 있겠습니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특전이며 최상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하늘을 우리러 큰절을 올리는 총련중앙의 일군들도 있었고 우리 동포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시책들이 속속 실현될 래일이 눈앞에 환히 보인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총련지부를 찾아와 함께 흥그러운 마음을 나누는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달음에 조국으로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지없이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에 《어머니 조국!》 하고 입속으로 뇌여보며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라는 노래를 저도 모르게 불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정녕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 조국의 뜨거운 사랑을 어찌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있겠습니까.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새겨질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채택,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법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국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역의 거치른 바람이 아무리 세차다 해도, 세상전지가 어떻게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우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존엄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지켜주려는 어머니조국의 후더운 숨결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더욱 뜨겁게 품어안아주십니다.

해마다 꼭꼭 사랑의 축전도 보내주시고 불후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의 대회장들에 불러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명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모국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해외교포들도 많지만 해외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정책으로, 법으로 쪼아박은 당과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뜻깊은 2022년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중앙 의장동지 앞으로 보내주신 새해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사스러운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더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동포들모두가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을 정을 다해 실행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진정 슬하에 있어도, 멀리에 떨어져있어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자식이 따로 없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재일동포들이 한식술로 자리잡고있음을 우리모두는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광장을 누벼나가던 강위력한 절대병기들의 웅건장중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실감하였습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이 최상의 높이에 올라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상응하게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웅지에 떠받들려 채택된것이 바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화국의 새로운 법을 류다른 감격속에 접하는것은 그것이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강국의 해외공민이라는 더없는 긍지와 영광, 자존과 배짱을 백배해주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국의 품이 있다는것,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이며 당당한 군사강국인 우리 조국의 법이 심원한 무게와 저력으로 우리들의 권익과 복리를 도모할것이라는 믿음이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벅차게 높뛰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새로운 법은 우리 동포들의 존엄을 전례없이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총련이 나아갈 앞길에 새로운 사상정신적활력을 부여주었습니다.

총련의 한 책임일군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처럼 강력한 실체로써 동포들을 굳건히 보호해주는 법은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조국이 지켜주는 재일동포들처럼 존엄높은 해외

공민은 세상에 없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으며 한 일군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들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밑에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조국의 룡성번영에 이바지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총련애국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큰걸음을 내짚을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과 시련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좌절과 동요없이 전진의 발걸음을 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조국의 룡성번영에 한마음 다 바쳐나가려는것이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며 민족교육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꺾듯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언제나 숨결을 함께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재일동포들이 영원히 안겨살 운명의 하늘이십니다.

온 겨레가 운명의 기둥으로 떠받드는 그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며 그 하늘아래 펼쳐질 조선민족의 래일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입니다.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고문 강해진

#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길에서



우리 말을 배우는 교토조선초급학교 학생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서 민족교육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에서 《조선학교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교를!》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본각지의 조선학생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준정규교육망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청상회에서는 《청상회학원》을 내오고 거주지역에 조선학교가 없거나 통학거리가 멀어 일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워주는 한편 그들을 조선학교들에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청상회학원》에서는 운영기간 국어, 조선역사와 동포

학생들이 비록 일본에서 살고있지만 조선사람으로 뚝뚝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 문예체육소조활동과 함께 학원에서 배운 우리 말과 우리 노래, 장교장단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모임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 넋을 새겨주고있다.

도쿄지역의 여성동맹조직들도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총련 도쿄조선제 9 초급학교를 맡은 여성동맹지부에서는 지역의 학령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벌리고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말쓰기, 수수께끼, 틀린 그림찾기 등 지능계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된 문제집들을 학령전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에 보내주는것을 들수 있다.

이곳 지부일군들이 착상하여

완성한 문제집의 내용들은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참신하고 다양하게 구성된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에서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민족인재로,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우리 학교를 적극 후원하고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말단기층조직인 분회들이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총련 흑가이도 샷뽀로지부 미나미분회가 흑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조청, 청상회활동을 통하여 단련된 핵심동포들로 구성된 분회위원회는 학교를 위한 일들

을 수많이 찾아하고있다.

분회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의 마음, 우리 분회의 지성을 보여 주자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푸짐한 점심식사를 자주 보장해주는 등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학생인입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다.

총련 아이찌현 미나미지부 미도리도요이에분회에서도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자기 활동의 첫자리에 놓고 학생인입사업과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지난해 새 교육시설을 준공하는데도 이 분회가 한몫 단단

히 하였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어느한 회의에서 이곳 분회장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동포대중주인형, 동포대중참가형으로 민족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겠다고 결의다지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가와사끼 지역의 총련 파 녀성동맹, 청상회, 조청, 교육회 일군들, 동포들도 애국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우리 학교를 빛내어야 한다며 가와사끼조선초급학교 새 교사건설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결과 건축잡지에 소개되어도 무방하다고 할만큼 현대적인 다

락식교사가 준공되였다.

이밖에도 총련의 각급 조직들에서 학교창립기념행사, 재일 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 동포학생들의 교류모임 등 각종 모임과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집단과 조국에 대한 소중함을 새겨주고 동포들을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뛰어들게 하고있다.

민족교육에 바치는 동포사회의 이런 뜨거운 진정이 있어 새세대들에게 애국의 바통이 변함없이 계승되고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대가 역세계 이어지고있다.

글 강진성

각종 모임과 행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집단과 조국의 소중함을 새겨주고있다.



학교창립 70돐 기념공연에 출연한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



도쿄단설초급학교합동 소년단입단식



그림책읽어들려주기수업



모내기 하고있는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

# 총련지부강화에 중심을 두고

총련의 모든 지부들이 총련조직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리고있다.

## 지부강화에 주력하여

애국운동의 거점인 총련지부를 강화하는것은 재일동포사회에 화목과 단합, 애국의 열기가 차넘치게 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는 총련지부위원장강습이 진행되었다. 강습은 지부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각 단위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은 강습을 계기로 애국운동에서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하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강습에서는 각계층 동포들속에 든든히 발을 붙인 지부, 동포핵심들이 주동이 되어 움직이는 지부를 만들며 지부상임위원회가 분회들의 개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데 대한 문제 등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강습을 통하여 지부위원장들의 실무능력과 수준, 역할이 크게 높아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부를 강화하여야 재일조선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성스러운 책무를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 동포들 누구나가 찾고싶은 지부로

총련 니시도쿄 동부지부 일군들이 동포들의 마음속고충, 생활상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동포생활상담소를 재정비하는 사업에 떨쳐나섰다.

이런 속에서 이곳 지부위원장이 동포생활상담소의 소장으로 되었으며 총련과 녀성동맹지부의 상임위원들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지난 시기 이곳 지부의 일군들은 지역의 수백호에 달하는 동포가정들을 방문하여 생활상문제

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벌였으며 분회들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매달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동포생활상담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그들은 제2차 동부지부활동가회의에서 《동포생활상담소 새 출발 모임》을 가지었다. 지부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각급 단체일군들의 열의에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상요구를 적극 풀어나감으로써 동포들이 스스로 찾고싶어지는 매력있는 지부로 꾸려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혈연의 정과 뉴대를 깊이한 모임

얼마전 총련 사이다마현 중부지부 동포들이 총련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 《모이자 중부동포들!》이라는 명칭의 행사를 가지었다.

이곳 지부에서는 덕과 정으로 따뜻한 동포사회를 꾸리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년초부터 행사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지역의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한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행사의 1부에서는 공넝기, 사람찾기 등 다양한 유희오락경기들이, 2부에서는 특색있는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총련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중급부 학생들의 춤과 음악단의 중창, 유치반어린이들의 노래는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특히 민족적정서가 진하게 흘러넘치는 장새납독주는 공연의 절정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참가자들은 장새납독주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을 펼치였다.

총련의 각 지부들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의 동포들사이에 혈연의 정과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게 하고있다.

글 강은순

#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

지구상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있다.

세계적으로 해외교포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으나 그 주요원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식민지통치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해외교포문제 역시 지난날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의 후파로 초래된 민족수난의 력사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지난 기간 해외교포문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옳은 리론적지침과 실천강령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주로 다민족국가안에서의 소수민족문제나 식민지민족문제와 같은것이 제기되었을뿐 해외교포문제와 같은 민족문제는 산생되지 않았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도 해외교포들의 운명을 거주국의 혁명과 인위적으로 련결시키거나 해외교포들이 민족애국운동을 하는것이 마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모순되는것처럼 여기는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현실에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해외교포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민족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리론을 자주시대 혁명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제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외교포문제는 철저히 민족문제의 한 고리이며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는것, 이로부터 해외교포운동은 동포들의 민족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자기 민족의 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이라는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주체의 리론에는 이 운동의 주체가 해외교포자신이라는것과 이 운동에 관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문제, 해외교포운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 등 해외교포운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오래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문제가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 경지가 개척되게 되었다.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주체의 사상리론은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더욱 발전풍부화되었으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었다.

해외교포조직들은 위력한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해외동포들은 참다운 애국운동을 즐기치게 벌려나가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일본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들수 있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결성된 총련은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각계각층 동포들을 조직에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정의로운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왔다.

오늘 해외교포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내여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신 커다란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사상은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글 김성경

# 생산능력을

# 부단히 개선하여

- 단천제련소에서 -



대규모유색금속생산기지 단천 제련소에서 증산목표완수에 매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돛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빛내일 열의안고 전기아연을 비롯한 모든 지표들의 생산을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이 세운 제련소에서는 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련일 생산

실적을 올리고있다.

제련소에서는 증산성과는 과학기술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관점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제련소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생산활성화와 실수률제고, 생산원가저하에

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가 나게 풀어나가고있다.

기술자들은 배소직장의 운광, 배소, 소광계통 등에 자동조종 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자연순환식폐열보이러에 막분리기술에





의한 물정제공정을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새 기술을 창안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염화암모늄, 탄산소다, 폴리아크릴아미드, 망간철 등 중요자재들을 국산화하고 새 지표들의 개발과 공업화단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 직장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리며 중산목표수행에로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고있다.

배소직장에서는 건조흡수탑의 비말분리기를 개조하여 대기중으로 나가는 류산비말함량을 국가기준보다 낮추면서도 류산과 수은생산을 늘이였다.

조액직장에서는 용해, 청정, 농축, 려과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생산능력을 높인데 이어 공정운영을 개선하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해액을 전해직장에 보내주고있다.

전해직장에서는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능력이 큰 주파수안정기설치로 아연전해조의 수명을

2배로 늘이고 전해실수률을 높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해아연생산량을 1.2배로 늘이였다.

주조직장과 카드미움직장에서 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생산공정들의 기술개조를 따라세워 생산을 보다 활성화해나가고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금 단천제련소의 생산능력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최원철



# 건설의 대번영기를 담보하는 건재공업

- 건설건재공업성 국장 리명일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재들을 원만히 생산하고있다.

최근 몇해어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함경북도의 어랑천발전소, 함경남도의 련포온실농장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수도 평양의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강동종합온실농장, 화성지구의 여러 단계 살림집, 20개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비롯하여 전국도처에 수많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섰다.

바로 이 변혁적성과들의 근저에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담보하는 자립적인 건재공업이 있다.

기자: 올해초 우리 나라는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 20개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건설 등 대건설사업에 또다시 진입하였다. 이 방대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건재공업부문에 있어 무엇보다먼저 세멘트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국장: 세멘트증산이자 곧 건설실적이다. 설계, 시공과 함께 건설의 필수요소를 이루는 건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이 바로 세멘트이다.

기초타입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일붙이기를 비롯한 마감작업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전 과정에서 세멘트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자재이다.

세멘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훌륭한 설계도 빛을 보게 되고 선진적인 공법도 은을 내게 되며 건설의 전반적형세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 증산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었다.

이들은 올해 첫달부터 조업이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증산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세멘트생산을 최고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전국의 건재생산기지들에 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경제적실리가 대단히 큰 새 기술을 도입하여 세멘트생산량을 높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상원로동계급이 추켜든 기적적증산의 봉화에 적극 호응하여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증산목표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조업이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한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 세멘트공장들에서도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세멘트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기자: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서 마감건재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국장: 옳은 말이다. 아무리 설계와 시공을 잘한다고 하여도 질 좋은 마감건재를 쓰지 않으면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마감건재의 국산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지금 마감건재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증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해마다 진행되고있는 각 도 건재전시회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기술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품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질적수준도 날이

향상되고있다.

다양한 건재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원료, 자재 확보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판유리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기능성유리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 있다.

평양건재공장에서 기능성타일개발과 수지창생산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평양석재공장과 룡강석재가공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여러가지 돌가공제품생산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와 같이 자립적이며 발전적인 건재공업토대가 있어 건설의 대번영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사진 김성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을 최고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



고향소식



# 새 문명, 새 생활이 따踵오는 교장

- 평안남도 숙천군을 찾아서 -



예로부터 열두삼천리벌과 더불어 사람들속에서 쌀고장이라 불리울만큼 농업이 군경제의 기본으로 되어있던 숙천군.

그러했던 군이 오늘은 지방중흥의 큰걸음을 내걸고있다.

특히 올해에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숙천군의 공업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었고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여 얼마전 우리는 숙천군에로의 취재길에 올랐다.

숙천군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 지구 협회 심양시 지부 차복신 동포의 조카며느리인 리춘화녀성이 살고있는 곳이기도 하다.

드넓은 벌을 지나 군소재지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눈에 제일먼저

안겨든것은 새로 일떠섬 지방공업공장들이었다. 현대미가 살아나게 건설된 군의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 옷공장은 건축형식이 나무랄데가 없었지만 내부도 흠잡을데가 없었다.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된 식료공장을 보더라도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가 보장되어있었고 흐름선을 타고 쏟아지는 갖가지 당과류들과 기초식품들은 도시의 식료공장 제품들 못지 않았다. 특히 군의 바다에서 나오는 원료를 리용하여 만든 조개젓과 멸치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품들은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 이 고장의 특산품으로 되고있다. 맛있는 식료품들이 생산되어나오는 공장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볼수록 우리는 식생활분야에서 뚜렷한 개진을 가져올 숙천군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이 안겨와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지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옷가공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숙천군옷공장에서는 세련된 형태미를 갖춘 다종다양한 계절옷들이 나왔고 숙천군일용품공장에서는 보기에 좋고 사용에도 편리한 각종 일용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숙천군옷공장 도안실장 최정심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룰때면 고향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커만지고 생산열의도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증산의 숨결이 약동하는 지방공업공장들에 이어 우리는 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보기에 또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를 따라 지방특유의 건축미를 자랑하며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 등을 사진기의 렌즈에

담아가던 우리는 직매점에서 일용품들을 사들고 나오는 숙천군 읍 20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양영광, 황은심부부를 만났다.

우리가 군에 온 취지를 듣고 난 남편인 양영광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농촌마을들에 문화주택들이 건설되고 지방발전정책의 첫 실체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식료품들과 일용품, 옷제품들이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어 우리 숙천군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중흥의 새시대가 펼쳐져 농업군이었던 숙천군이 모든 면에서 다각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금지과 보답의 일념으로 총만된 심정은 비단 이들에게서만 느낀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들린 숙천군병원, 약전농장 등 모든 곳에서 숙천군주민들이 터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새 문명,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참으로 지방이 변하는 지방중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새 문명, 새 생활이 마중오는 숙천군이였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숙천소학교의 음악시간

새로 건설된 숙천군 약전농장의 살림집들



농업지식을 보급받고있는 숙천군 성남농장의 농장원들



# 외국어교수의 전수능력을 높여

- 평양외국어학원에서 -

평양외국어학원은 10월8일 모범교수자가 많으며 2023년 10대최우수교원도 배출하였다.

특히 영어3분과의 모든 교원들이 새교수방법등록증을 받았고 3명의 교원들은 학위학직 소유자이다. 교원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하게 된 근본요인은 목요분과의 날운영을 실속있게 한데 있다고 분과장 김성순은 말하였다. 교수의 질적수준은 교원들의 자질에 달려있으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자면 분과의 날운영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교원들이 운영계획서부터 잘 작성하게 하면서 거기에 분과가 맡은 과목의 특성과 교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론, 학생들의 응용

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는것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분과에서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여졌고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여줄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들도 련이어 창안되게 되었다.

초급반학생들의 외국어수업에서 교과서내용에 기초하여 다매체편집물을 만들어 학생들의 입말능력과 회화능력을 높여 줄수 있는 교수방법을 내놓은 교원 정은숙, 노래와 여러가지 선물을 통하여 인사말을 비롯한 간단한 회화문형들을 쉽게 습득시킬수 있는 교수방법을 창조한 교원 김옥영을 비롯하여 분과안의 교원들이 창조한 새 교수방법들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리혁철교원은 고급반학생들의 외국어활용능력과 발표력을 높여주는데서 효과적인 교수방법들을 내놓았다. 특히 국어문학수업에 도입되고있는 외국어결합교수방법은 비교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조선어와 외국어의 서로 다른 문법적 특성을 잘 인식시킬수 있는것

으로 하여 학원적으로 본보기로 되었다.

새 교수방법들로 전수능력을 높인 결과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해마다 전국제1중학교, 외국어학원 학생들의 학과경연에서 평양외국어학원 학생들이 련이어 우승을 쟁취하였다. 지난해에도 고급2학년 학생들이 권세현, 리필승이 특등을 하고 백은주가 1등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분과의 교원들이 맡은 학생들속에서 7.15최우등상수상자들이 배출되었고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졌다.

분과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평양시의 초급, 고급중학교

외국어교원들을 위한 강습도 진행하고있다.

평양시의 형제산구역 제산기술고급중학교 교원 조소현은 강습에 참가하여 교원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많이 배웠다고, 목요분과의 날운영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훈교원이며 부원장인 방은희는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그만큼 교육도 부단히 발전하고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는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학생들을 나라의 역군들로 키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일봉  
사진 리영철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태권도 선수후비들이 자란다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 태권도소조는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고급중학교부문 태권도종목에서 9연승을 기록하였으며 소조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20여명의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들을 배출하였다.

지난해 조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2024년 전국 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룡구, 배구, 탁구를 비롯하여 18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 경기대회의 고급중학교부문 태권도종목에서 락랑구역 충성고급중학교 태권도소조가 남자 종합 1등, 여자 종합 2등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경기들마다 높은 태권도기술을 보여주어 심사성원들과 관중들의 절찬을 받은 박권혁, 리지혜, 림광옥 소조원들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여받았다.

30여년을 이곳 태권도소조의 지도교원으로 일하고있는 김형진의 말에 의하면 경기에서 소조가 성과를 거둘수 있는 비결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족의 넋과 기상이 깃들어있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즐겨 배우도록 한데 있다고 한다.

소조에서는 소조원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상대방의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위력한 수단인 태권도호신술과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의 경기모습을 수록한 각종 록화편집물시청을 자주 조직하는 한편 원리교육에 힘을 넣어 그들이 태권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하였다.

유희식훈련방법도 소조원들의 훈련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소조에서는 태권도기초기술습득에서 기본인 자세, 이동, 거리조절 등을 소조원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빠른 이동을



위한 점족유희, 합리적인 거리조절을 위한 벗어나기유희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였다. 유희를 통한 훈련방법은 소조원들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주고 임의의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능력을 높여주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태권도경기에서는 육체기술적준비가 완벽해야 난도높은 동작들을 펼쳐보일수 있다. 이를 위해 소조에서는 육체훈련의 지표를 늘이고 기능성육체훈련방법들도 적극 도입하면서 소조원들의 육체적능력을 부단히 제고하였다.

소조원들의 육체적능력이 따라서는데 맞게 소조에서는 소조원들이 자기의 개성에 맞는 특기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였다. 결과 많은 소조원들속에서 뛰며360°돌아돌려차기, 연속적인 주먹지르

기 등 난도높은 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대로 경기성파로 이어졌다.

특히 2024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고급중학교부문 여자태권도 개인맞서기 58kg급



2024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태권도종목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리지혜(왼쪽)와 림광옥(오른쪽)

결승경기에 진출한 림광옥소조원은 상대방의 공격을 리용한 뛰며뒤차기, 뛰며360°돌아돌려차기, 뛰며주먹지르기 등 손발결합에 의한 재치있고 위력한 반타격기술동작들을 펼쳐보임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리지혜소조원 역시 개인맞서기 52kg급과 단체맞서기경기들에서 한발 높이 들어 내려찍고 360°돌아돌려차기, 연속적인 주먹지르기 등 날파람있는 손발결합동작들을 보여주어 영예의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소조원들의 경기모습을 본 평양시태권도선수단 단장 김효성은 《이곳 학교 태권도소조원들은 육체기술적준비가 좋을뿐 아니라 자기의 특기기술을 가지고있다. 미래의 태권도강자로 준비해나가는 그들의 경기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이 학교의 태권도소조를 나온 많은 학생들이 선수단들에서 이름을 날리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 재능동이 소녀



김영정

평양시에 있는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지난해에도 이 유치원의 김영정어린이가 제16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그림분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놀고먹던 꿀꿀이》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영정이는 로동에 성실한 집짐승들의 긍지감과 놀고먹던 꿀꿀이의 후회의 감정을 한장의 그림에 집약적으로, 립체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사실 5살밖에 안되는 어린이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미술적재능뿐 아니라 그림을 통하여 이야기를 꾸미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 극을 구성할줄 아는 문학적재능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실지 영정이는 이 두가지 재능을 천성으로 가지고있다.

2살때부터 글을 익힌 영정이는 부모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도 눈에 보이는 글들을 큰소리로 읽고 글에 담겨진 뜻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음을 제기하곤 하였다.

한편 한번 보고 들은것에

대한 리해가 매우 빠른 영정이는 유치원에 올라와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글짓기와 시짓기를 하였는가 하면 그림에 담아보기도 하였는데 신통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유치원에서는 영정이의 재능이 꽃피어나도록 적극 계발시켜 주었다.

여러가지 책을 읽은 다음에는 시와 그림으로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물음이 많은 영정이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교육교양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그리고 부모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미술적재능도 남다른 그의 장점을 함께 계발시키며 그 폭을 점차 넓혀나갔다.

영정이의 재능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신문과 소설책을 읽고는 제법 그에 대한 시를 지었고 그림에 담아보려고도 애썼다. 하지만 영정은 리해력이 빠른 반면에 성격이 급하여 그림을 그리는데서 중요한 세부를 놓치곤 하였는가 하면 공간표상능력도 미약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양원들은 그에게 바둑을 배워주었다.

그는 침착성과 정확성, 수학적사고력을 요구하는 바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단점을 메꾸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후 어린이의 그림그리기와 글짓기에서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교양원들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영정이는 재능의 키를 높이 자라울수 있었으며 경연에서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게 되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앞날이 기대되는 영정이의 천성을 계속 계발시키기 위한 교육을 심화시키고있다.

글 강경수  
사진 리철



김영정어린이가 창작한 글작품집 《소원》과 전국교육부문 바둑경기-2024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받은 상장, 표창장



유치원에서는 제법 어른스러웠던 영정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5살의 동심을 감추지 못한다.

유모아

## 허풍쟁이의 사냥숨씨

한 사람이 사람들앞에서 자기는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자찬하면서 자기의 사격술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뽐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다.

어느한 호수가에 이르자 친구는 호수에 있는 물오리 한마리를 가리키며 어서 한번 숨씨를 보이라고 추기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거들먹거리며 사격자세를 취하였다. 《땅》 하는 아무진 총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었다.

그런데 물오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이였다. 친구는 웃음이 나오는것을 억지로 참는데 그 허풍쟁이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말했다.

《참, 기이한 일이군! 죽은 물오리가 날아가는걸 난생처음 본다니까!》

\* \* \*



#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개발되자마자 사람들속에서 필수치과위생용품으로, 인기제품으로 되었다.

개발자인 전충일소장의 말에 의하면 빛전자치술을 만들자면 적외선과 전자방출에 의한 입안청결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의학과 전자공학의 경계과학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연구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연구에서 관건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적외선등과 건전지를 개발하는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전공분야가 아닌것으로 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 전문연구기관들을 찾아다니였고 적외선등의 기술적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십차례의 실험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 나날 적외선등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의 기술적지표가 하나하나 개선되었다. 이렇듯 지칠줄 모르는 탐구로 이어진 2년간의 연구끝에 전충일소장은 모든 요소들의 국산화가 실현된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치술인 빛전자치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광원에서 600~1 000nm파장의 적외선 및

평양시의학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연구소는 발족된지 4년밖에 안된다.

연구사들 역시 20대, 30대의 청년들로서 연구사업년한도 길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적지 않은 특허증서와 발명증서들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빛전자치술을 들수 있는데 이것은

상식

## 식후에 급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식후 담배를 피우면 평시에 피우는것보다 10배나 건강에 해롭다. 그것은 식후에 소화기관의 피순환량이 증가되면서 담배연기속의 많은 유해성분이 흡수되어 간과 뇌, 심장혈관을 해치기때문이다.
-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식후 한시간동안은 차를 마시지 않는것이 제일 좋다. 식후 위에서 음식물이 거의 소화되었을 때 차를

- 마셔야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지나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후 지나친 운동을 하면 운동량이 증가되어 소화기관이 영양물질을 소화흡수하는데 영향이 미치게 된다. 특히 심장기능이 약하고 혈관경화증과 혈압반사조절기능 장애가 있는 로인들은 식후 혈압이 낮아지는 등의 현상이 자주 나타나

- 므로 운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 과일을 먹는것을 흔히 음식문화에서 제일 적합한것으로 여기고있다. 식당과 호텔은 물론 가정들에서도 사람들은 식후 과일을 즐겨 먹는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생활습관이다. 식후 인차 과일을 먹으면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

보임빛선이 발산되고 전자방출전극에서는 초당 103~105개의 전자(음이온)가 방출되는 빛전자치술은 일반치술에 비해 살균력과 이물, 입냄새 제거능력이 강한것으로 하여 여러 전시회들과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특허로 등록되었다.

지금 사람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쑥-박하 공기소독분무향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연구사들의 지혜와 열정이 낳은 산물이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까지만 해도 공기소독제개발은 조국에서 미지의 분야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방역능력을 개선하자면 꼭 효능높은 공기소독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대성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주저없이 연구에 달라붙었다. 실험방법과 약물배합비를 찾기 위해 며칠밤을 새워가며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실험과정에 병원성균에 감염되어 고열로 앓아누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마침내 연구사들은 공기소독효과가 높고 리용방법이 편리하며 사용후 불쾌감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기소독제인 쑥-박하공기소독분

무향을 만들어내놓게 되었다.

이들이 연구개발한 쑥-박하공기소독분무향은 시원하고 상쾌한 냄새로 공기정화뿐 아니라 공기소독도 진행하는 기능성분무향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쑥공기소독분무제보다 우월한것으로 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사들의 새 제품개발의욕을 적극 불러일으켜 지난해에만도 호흡기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쇠뿔발효기침물약 등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개발하였으며 그중에서 2개의 의약품들이 특허로 등록되었다.

현재 연구사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선진 보건제품들을 개발할 야심을 안고 효능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리영철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은 여러 발명 및 과학기술 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  
내고향여자축구선수단 책임감독

지난해에 진행된 국제 축구  
련맹 2024년 17살미만 여자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은 대회력사상  
처음으로 세번째 월드컵을 들어  
올렸다.

국제 축구련맹과 여러 나라의  
축구전문가들, 언론들은 이번  
우리 팀의 우승에 대해 이구동성  
으로 찬양하였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  
고 기술적으로 재치가 있으며  
육체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고있다.》

《조선팀의 승리는 결코 우연  
한것이 아니다. 그들은 개인  
기술이 매우 좋고 서로 호흡도  
잘 맞출뿐 아니라 감독의 전술  
적의도를 철저히 실현하였다.》

...

우의 평가들은 팀을 우승에  
로 이끈 송승권책임감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내고향여자축구선수단  
감독인 그는 지금까지  
20여년간의 감독년 한을

기록하고있다.

지난 시기 축구계에서 로련  
하고 경험이 풍부한 감독으로  
평가받은 그는 지난해 있는  
월드컵쟁탈전에서 자기의 실력  
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육체기술  
적준비가 좋고 결합능력이 높아  
성인급수준이라고 인정받고있



는 여러 나라 우승후보팀들을  
제압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강팀들을 이기자면 그에  
대응한 보다 강한 경기방식이  
요구되었다.

그는 경기시작부터 완강한  
공격대형으로 득점의 문을 먼저  
열도록 하였으며 선수들이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박력있게  
경기를 운영해나가도록 전술  
방안을 짜나갔다. 방어선을  
중간지대앞으로 쑥 내밀어 압박  
방어와 반공격을 날카롭게 들이  
대도록 하였으며 실사 실점을 당  
한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침착  
하게 자기의 경기속도를 절대로  
늦추지 않도록 하였다.

예리한 공격이자 완벽한 방어  
라는것이 그의 경기전술에서  
찾아보게 되는 요점이다.

선수들은 경기들에서 강인한  
의지력과 기술,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순간의 주저나 멈춤없  
이 이악하게 감독의 전술적의도  
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경기후 우승의 비결에 대해  
묻는 어느한 나라의 기자에게  
송승권감독은 《축구는 모든

선수들의 단합을 생명으로  
한다. 선수들의 높은 집단  
주의정신이 오늘의 승리를 안  
아왔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전술안이라  
하여도, 개별적선수들의 장점  
이 우수하다 하여도 팀의 집단  
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승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가 말은 선수들에게는 하나  
의 지론이 있다.

자신이 잘못하면 10명이  
고생하고 자신이 실수하면 팀이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팀과 떼  
여놓은 자신이란 있을수 없다.

감독은 평시훈련에서 개별  
적선수들의 육체기술적측면을  
중시하면서도 선수들의 심중  
에 언제나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보다 팀의 명예,  
조국의 명예를 앞에 놓는 집단  
주의정신이 자라도록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었다.

선수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은 생활  
에서는 물론 육체적한계를 초월  
하는 훈련의 나날에도 발휘되었  
으며 그것은 곧 좋은 경기성과

로 이어져갔다.

월드컵경기를 치르기 전에  
국내에서 이들의 훈련과 경기  
를 지켜본 전문가들과 애호가  
들은 단단하게 여문 팀, 승산이  
확고한 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평하였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잘  
리해해주고 그들이 항상 좋은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  
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애쓰는  
감독을 선수들은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송승권을 두고  
성공한 감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19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  
미만 여자선수권대회(당시)에서  
아쉽게도 2위를 하였다.

(선수들은 있는 힘껏 뛰었다.  
그러나 패하였다. 이것은 결국  
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가?)

경기 후 그는 훈련장에  
다시 나서는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러나 자기를 믿고 국가팀  
을 맡겨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  
에 우승의 경기성가로 보답할  
의지를 가다듬었다. 여러해동안  
밤잠을 잇다싶이하며 월드컵  
보유팀들의 훈련과 경기방식 등  
세계적인 축구발전추세를 쉽  
없이 탐구하고 노력하였다.

감독의 강인한 노력은 그대로  
선수들의 훈련열의를 높여주는  
자양분으로 되었다.

내고향여자축구선수단 단장  
은 《그를 한마디로 평가한다  
면 열정적인 인간이다. 그의  
정열적인 태도는 선수들을 언  
제나 분발시키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선수들에게 훈련정형을 분석해주고있는 송승권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 애국의 마음만고

애국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할수 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고월선녀성을 취재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궁궁이약초연구사》라고

부르고있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데는 수십년동안 궁궁이약초를 연구하여 고려약들을 개발한데 있다고 볼수 있었다.

그가 궁궁이약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수십년전이었다.

량강도 해산시가 고향인 그는 소녀시절에 고려약으로 급성 소화불량증을 고쳤다고 한다.

약초의 신비한 효능이 고려약에 대한 소녀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날이 감에 따라 깊어지는 고려약에 대한 애착을 안고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을 지망하였다.

대학시절은 그에게 고려약의 효능과 그 제조방법에 대한

과학기술적기초를 다져주었을뿐 아니라 고려약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체질적특성에 맞는 나라의 재부임을 깊이 새겨주었다.

어느날 강의에서 그는 북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궁궁이가 피를 잘 돌게 하고 머리아픔, 어지럼증, 고혈압 등 혈액순환

기질병치료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궁궁이의 약성분에 대해 파고 들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착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보건단위에서 약제사로 일하면서 궁궁이의 약리작용과 재배

방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 그는 얼마든지 주사약을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준비사업을 착실히 다그쳤다. 그것이 쉽게는 성공을 기대할수 없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당시로서는 알수 없었지만 어쨌든 해볼만한 일이고 누구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탐구의 길에 나서게 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여서 연구사업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애로와 난관에 부딪혔다. 약효성분이 높은 야생궁궁이를 얻으려고 약초채취계절에는 해발 1 000m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몇달동안 숙식을 하고 한편으로는 궁궁이

약초를 재배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채취한 약초에서 독성분을 제거하여 주사약으로 만들기 위해 GMP설비가 갖추어진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근 10년간 가정을 거의나 돌보지 못하였다. 그 나날 여러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궁궁이로 만든 고려약들은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품전시회-2024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궁궁이혈압하강싸락을 개발하여 국가규격을 받았다.

고월선녀성은 《흔히 사람들은 일터에서 물러나 년로보장을 받게 되면 대체로 자신을 성 쌓고 남은 돌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년로보장을 받았어도 나라에 보탬을 줄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였다.

고월선녀성에게 높은 국가수훈이나 명예칭호는 없다.

그러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쳐가며 생의 보람을 찾는 그야말로 애국자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비록 육체는 로쇠해도 애국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사는 고월선녀성. 우리의 눈에는 그가 누가 알아주건말건, 보건말건 깊은 산중에서 하얀 꽃을 피우는 궁궁이처럼 안겨들었다

글 변진혁  
사진 김평

것을 당시로서는 알수 없었지만 어쨌든 해볼만한 일이고 누구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탐구의 길에 나서게 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때여서 연구사업에서 이루 말할수 없는 애로와 난관에 부딪혔다. 약효성분이 높은 야생궁궁이를 얻으려고 약초채취계절에는 해발 1 000m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몇달동안 숙식을 하고 한편으로는 궁궁이

약초를 재배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채취한 약초에서 독성분을 제거하여 주사약으로 만들기 위해 GMP설비가 갖추어진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근 10년간 가정을 거의나 돌보지 못하였다. 그 나날 여러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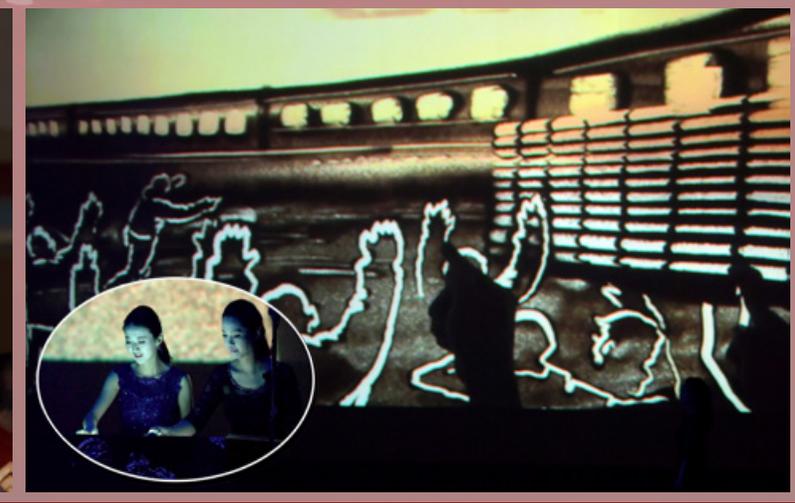
받기도 하였고 자식들로부터 원망어린 목소리를 들은적도 있었다.

모진 곤난을 끝끝내 이겨내고 연구를 시작하여 18년만인 2012년에 궁궁이혈전주사약을 개발해내고 특허를 받았다.

궁궁이혈전주사약은 가장 우수한 혈전용해제로 평가되어 여러 전국과학기술축전들과 전국의학과학토론회, 발명 및 새 기술진람회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였으며 각 약국들에서 10여년간 커다란 호평속에 판매되고있다.

성파에 만족을 모르는 그는 그후 평양에 올라와 살면서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궁궁이약초의 약리작용범위를 더욱 넓히고 치료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벌려





# 공연의 막은 내리었지만

우의 사진들은 지난 2월에 진행된 피바다가극단의 음악무용소품공연의 일부 장면들이다.

피바다가극단은 조국의 관록 있는 예술단체이다.

5대혁명가극을 훌륭히 창조형상한 가극단에서는 최근시기에 다채로운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였다.

특히 올해 정초부터 음악무용소품공연, 명곡, 명장면 묶음공연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공연들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평양대극장은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었고 객석은 열광하는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천구역에 사는 김은주는 《아마도 그것은 공연에 최근

새로 나온 노래들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가극단에서는 노래 《조국에 대한 노래》, 《우리는 조선사람》,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을 비롯한 노래들을 새롭게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애국을 격조높이 구가한 노래들은 명가사들로 엮어지고 곡 또한 명곡인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조국인민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있다.

만경대구역에 살고 있는

량지향은 공연을 보고 《인기 배우들의 출연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시기 공연들에서 풍부한 성량과 재인 안삼블로 여운을 남긴 국제콩클수상자이며 인민배우인 서은향, 혁명가극들에서 주인공역을 수행한 공훈배우들인 김향, 리정란, 2.16예술상 수상자인 리철진 등이 관중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뿐만아니라 민족적색채가 짙은 무용 《옹헤야》, 《샘물터에서》 등의 종목들도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자기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성을 잘 조화시킨 공연은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관중들은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은 하나하나가 다 여운이 있다.》, 《자기 얼굴이 뚜렷한 공연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연의 막은 내리었지만 사람들은 종종 화제에 그때의 광경을 떠올리고있으며 가극단의 다음번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성철



새 공연을 준비하고있는 피바다가극단의 창작가, 배우들

몽금포

# 코끼리바위

몽금포코끼리바위는 황해남도 룡연군에 있다.

룡연군의 바다가에 있는 이 바위는 지각의 틀동과 풍화 및 해식작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하는 자연물로서 학술 및 교육적의의가 크며 기묘하게 생긴것으로 하여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이 바위는 오랜 지질시대를 거쳐 바다의 선택침식작용과 풍화 및 해식작용에

의하여 코끼리모양을 이루었다.

바위의 높이는 약 15m이고 길이는 10m, 《코》부분의 둘레는 약 3m이다.

바위모양새가 썰물때에는 육중한 코끼리가 물을 찾아 물가로 나가는것 같으며 밀물때는 물에 들어서서 긴 《코》를 바다물에 드리우고 물을 마시는듯 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글 김일봉  
사진 홍광남

# 민족의 슬기어린 탈춤유산들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문득 동포녀성에게서 이런 물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산의 탈군들이 잘 있습니까?》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의 조국방문이 탈춤으로 유명한 봉산과 어떤 인연이 있을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얼뜨름해있었습니다.

나의 심중을 헤아린듯 그는 봉산탈춤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게 된것은 고향이 봉산군인 외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시기 봉산탈춤을 지켜온 탈군들중의 한사람이었기때문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하여 그는 탈춤에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언제인가 조국에서 장애자예술인들의 공연을 본적이 있었다고, 청력장애자들이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지금도 그 춤동작들을 떠올릴 때면 웃음집이 흔들거리곤 한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와 우리 민족의 탈춤유산들

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누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이번 민족의 향기란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역에 따라 황해도지방의 봉산탈춤, 해주탈춤, 강령탈춤, 함경도 북청지방의 북청사자탈춤 등 지역의 이름과 나란히 불리우는 탈춤유산들이 있습니다.

봉산탈춤, 해주탈춤, 강령탈춤들은 모두 량반과 중들의 부화방탕한 생활과 부패무능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면 북청사자탈춤은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성대히 진행되는 동물탈놀이로서 사자의 용맹한 기상과 활달한 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씩씩한 기상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봉산탈춤은 력사가 오래고 소문도 자자할뿐만 아니라 오늘도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탈춤이 자주 펼쳐지곤 합니다.

우리 나라 서부도시 사리원시에서 약 25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봉산군에서는 맛 좋고 약효가 높은 대추나 밤과 같은 특산물도 많이 나지만 그보다는 탈춤이 하도 유명하여 봉산하면 탈춤을 의례히 먼저 떠올리곤 한답니다.

이 지방사람들은 봉산탈춤의 원전을 잘 보존하면서 세대가 교체되는데 맞게 무용수들과 음악반주성원들의 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고있으며 탈춤형상에 필요한 의상, 소도구들을 손색없이 갖추어놓는 사업도 잘하고있습니다.

탈춤이나 탈놀이에 리용되는 탈은 종이, 나무, 삼베, 비단, 바가지 등 다양한 재료로 여러가지 모양을 꾸며 얼굴에 쓸수 있게 만드는데 이것을 가면이라고도 부르고있습니다.

황해도지방의 대표적탈춤인 봉산탈춤은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볼수 있다.



탈춤을 보여주는 옛 그림

력사를 거슬러올라가보면 원래 탈은 원시시대 사람들의 로동과 싸움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계기에서 창조된것이였습니다.

우리 나라 삼국시기의 탈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여 일본에까지 전하여졌는데 당시 일본에서 사용한 탈이 현재까지도 범룡사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4세기중엽의 고구려유적인 고국원왕릉의 벽화에 코가 큰 탈을 쓰고 춤추는 모습이 형상되어 있으며 그밖의 삼국시기 유물들과 력사기록들에도 탈놀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탈놀이는 고려에로 계승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이 더욱 풍부해졌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일정하게 보여주는것과 함께 량반관료들의 부패성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탈춤들은 오늘날 민속무용작품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으며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은 력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때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민족의 슬기가 어려있는 탈춤유산들은 자기 고향땅의 자랑만이 아닌 조국과 인민의 소중한 재보로, 아름다운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간직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럼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해외에 사는 동포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 민족적정서와 감정, 넋과 향취가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혈맥을 이어주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글 연옥, 사진 황정혁



## 장기수풀이 (29)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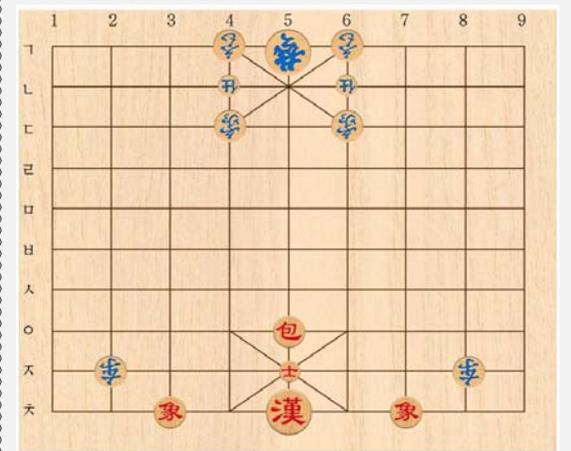
거궁입사

궁수리를 할 때 궁이 밀선으로 내려가고 궁자리에 귀사를 놓은것으로서 궁성방어구축을 뜻한 말이다.

거궁입사가 실현되면 궁성이 안전하고 공격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으로 되므로 진꾸리기 단계에서 궁수리를 놓치지 말고 동시에 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28)에 대한 답

ㄱ7포ㄷ4, ㄴ5졸ㄷ4, ㄹ6차ㄷ6, 17말ㄴ5, ㄷ6차16, 17말15, 16차ㄴ5, 14궁ㄴ5, 18차ㄷ6, 15궁ㄷ6, 15말ㄷ4,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1679년에 고쳐세운 후 정광사는 여러 차례 보수 하여내려왔다.

정광사에는 지금 대웅전과 명부전, 무량수각이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이밖에 칠성각 등이 더 있어 모두 10여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대웅전은 부재들이 특별히 실하고 서로 치밀하게 물려있는것이 눈에 띄운다. 기둥은 모두 굽직한것으로 세웠는데 그가운데서도 네 모서리 기둥은 특히 굽고 높게 하였다. 이렇게 한것은 건물 전체의 역세기와 건물의 형태상어울림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구성수법의 하나이다.

대웅전의 장식조각이 섬세하다. 특히 앞선 모서리두공에 얹은 룡대가리조각과 대들보끝에 새긴 라치조각 그리고 건물안의 중도리밀에 끼운 다양하고 세련된 화반조각 등은 당시 선조들의 뛰어난 조각술을 보여주는 걸작들이다.

룡마루와 박공마루, 추녀마루와 처마 등이 모두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합각지붕은 푸른 수림과 서로 조화되어 민족적정서를 강하게 풍기면서 고유한 조선건축형식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있다.

대웅전안에는 높이 약 2m의 불단을 만들고 그우에 여러개의 부처를 올려놓았다.

정광사는 조선봉건왕조중기의 대표적인 건축 유산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옛 건축술의 높이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를 준다.

글 김영은  
사진 김금진



조국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 정광사

정광사는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절이다.



대웅전의 내부



명부전

# 서산대사와 사명당

30대에 벌써 덕망이 높아 고승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묘향산의 중인 서산대사(1520년-1604년)와 금강산의 중인 사명당(1544년-1610년)사이에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중에는 이런 일화도 있다.

기골이 장대한 사명당은 서산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와 한번 겨루어볼것을 속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찾아 길을 떠났다. 세상형편을 한번 돌아볼겸 서산대사도 만나고싶어서였다.

원래부터 서산대사 못지 않게 학승으로 이름이 났던 사명당은 소문을 내지 않고 대사에 불쑥 나타나 겨루어보리라 생각하면서 황해도, 평안도

일대를 돌아보고 묘향산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어디선가 난데없이 어린 중이 나타나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의아해한 사명당은 어린 중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인데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

《저의 스님이 대사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마중을 나왔소이다.》

어린 중의 대답이었다.

사명당은 다시 그 중에게 물었다.

《너의 스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한테 보낸 단 말이냐?》

《저의 스님은 서산대사님인데 오늘 금강산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저더러 어서 가서 모셔오라고 내보내셨소이다.》

과시 명성그대로라고 생각한 사명당은 머리를 끄덕이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린 중을 따라 서산대사가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반겨맞아들이었다.

《먼길에 로고가 많았겠소이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소이다.》

인사를 하는 사명당은 대사의 모습을 눈여겨 살폈다.

몸집은 자그마한데 눈에 광채가 도는 것이 호락 호락해보이지 않았다.

사명당은 첫 상면에 떠보자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

《대사님, 여기로 오다가 고운 새 한마리를 잡았는데 이걸 대사님께 드려야 좋을지 놔줘야 좋을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소이다.》

사명당은 미리 준비했던 새 한마리를 장삼소매에서 꺼내놓았다.

그러자 서산대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사께서 소승을 찾아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 마중해야 좋을지 아니면 안에서 모셔들여야 좋을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망설이고있소이다.》

사명당은 이로써 벌써 두번째로 무안을 당한 셈이 되었다.



# 고구려시기의 건축물로 새로 입증된

# 역사유적 두대동성

사회과학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성유적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 의의있는 결과를 내놓았다.

학자들은 최근에 황해북도 수안군 룡현리의 두대동성이 고구려시기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두대동성의 평면생김새는 조롱박모양에 가까우며 성벽둘레의 총길이는 1500m이다.

성벽은 산경사면을 수직으로 깎아내고 밑을 평탄하게 한 다음 잘 가공한 현무암의 돌들을 리용하여 산릉선에 의지하면서 외면축조방법으로 쌓았다.

성돌의 크기는 너비 25~30cm, 두께(높이) 22~30cm, 길이(뿌리길이) 35~40cm정도이다.

현무암으로 만든 성돌들은 앞면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고 네귀가 둥그스름하며 뿌리쪽이 뾰족한 전형적인 고구려시기의 성돌들이다. 성벽축조형식을 보아도 밑에서부터 3단까지는 계단식으로 굽도리를 조성하였으며 그우에서부터는 옷돌들이 약간씩 뒤로 들어가게 높이 성벽을 쌓아올리었다. 4각추형의 성돌뿌리부분에는 막돌들을 지질러놓아 성돌들이 빠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고유한 성벽 축조방법이다. 조사과정에 발견된 붉은색기와조각들의 앞면에는 노끈무늬가 찍혀져있고 뒤면에는 배천무늬가 있는데 대성산성에서 나온 기와들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두대동성이 전형적인 고구려의 산성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유적들과 함께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두대동성일대의 지명들과의 연관속에 심화시켜 이 성이 5세기 초 고구려에 의하여 축조되었다는것을 밝혀내었다.

\* \* \*

때는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몇해전이라 사명당은 서산대사에게 오늘 나라에 뒤숭숭한 소문이 돌기에 한번 만나뵙고 의논하자고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으로나 예언으로나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당해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작정하였다.

《대사님, 세월이 뒤숭숭해서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아 예까지 왔는데 오늘 대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대사님은 저의 스승이옵니다. 이 미흡한 소승에게 많이 배워주시시오.》

그러면서도 사명당은 체구가 장대한 자기가 이렇게 체소한 서산대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모시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것이 어딘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벌써 사명당의 이런 속마음을 넘겨짚고있었다.

《조그마하고 초췌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것이 부끄러우면 기골이 장대한 대사님이 제 스승이 되시구려.》

사명당은 금시 얼굴이 벌개졌다. 사명당은 대사앞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사님, 황송하옵니다. 소승은 진정으로 대사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되었으며 전쟁이 일어나자 서산대사를 의병장으로 하고 자기는 그의 제자가 되어 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나서 용감히 싸웠다.

\* \* \*

# 석담느티나무

석담느티나무는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우리 나라 느티나무 가운데서 오래 자란 나무로서 크고 세력이 왕성하며 보기도 좋아 풍치와 학술상의의가 있다.

1100년경부터 자란 석담느티나무는 그 모양이 우산처럼 생겼다. 높이 27m, 가슴높이둘레 7.8m이다.

나무는 높이 3m에서 가지들을 쳐서 직경이 21m정도 되는 둥근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천연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있는 석담느티나무는 명승지 석담구곡의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다.



# 수박화채



음식감(4명분)  
수박 400g  
사탕가루 100g

### 만드는 방법

- ① 수박은 껍질을 벗기고 절반은 1cm크기의 립방형으로 썰고 나머지는 분쇄기로 갈아서 즙을 낸다.
- ② 냄비에 물과 사탕가루를 넣고 끓여 식힌 다음 수박즙과 고루 섞는다.
- ③ 수박단물에 수박조각들을 띄워 낸다.

수박화채에 얼음조각을 함께 넣으면 보다 맛있게 먹을수 있다. 수박은 신장병치로나 해열작용에 특효가 있으며 피로를 풀어준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